

‘금배추’ 가격 한풀 꺾였지만... 김장 부담은 ‘여전’

배추1포기 8860원 5일 새 9.22% ↓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도 하락세 공급량 감소 등 불안요소는 상존 농림부 “이달 하순 평년수준 회복”

연일 고공행진하던 배춧값이 한풀 꺾이면서 김장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金)배추’의 대체재로 떠올라 수요가 급증한 얼갈이배추와 양배추 등 일부 채소 가격도 하락세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가파르게 오른 배추 가격이 평년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또 배추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줄어든 데다 폭염 영향으로 공급량이 감소해 배춧값 불안이 김장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김장을 포기하는 소위 ‘김포족’도 등장하고 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광주지역 배추 1포기 소매 가격은 8860원으로 불과 5일

전인 9760원과 비교해 9.22%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6525원)와 비교하면 35.79%, 평년(6444원)보다는 37.49% 증가한 가격이다.

배추 대체재로 떠오르며 가격이 상승했던 얼갈이배추와 양배추 가격도 한풀 꺾였다. 지난 15일 양배추 1포기 소매 가격은 4330원으로, 지난달 26일 4500원까지 치솟은 이후 같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지난 11일 4330원(-3.78%)으로 하락했다. 얼갈이배추 1kg 소매 가격은 5563원으로 지난 8일 6023원과 비교해 일주일 만에 7.64% 낮아졌다. 이는 전월(4836원) 대비 15.03%, 평년(2745원) 대비 102.66% 상승한 가격이다.

김장 재료로 쓰이는 고춧가루는 평년 대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고춧가루 1kg 소매 가격은 3만333원으로 전월 대비 13.57% 낮아졌다. 전년보다 14.74%, 평년보다 8.03% 하락했다. 무 1개 가격은 3330원으로 전월(3762원)보다 11.48% 낮아졌다. 다만 무 가격 역시 전년보다 37.38%, 평년보다 17.29% 높

다. 대파 1kg, 생강 1kg 가격은 각각 3907원·1만6833으로 전월 대비 15.73%·6.9% 상승했다.

이처럼 김장 주재료 가격이 하락해 김장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늘고 있는데 다음 달 배춧값이 5000원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이 나와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물가협회는 이날 배추 수급 동향과 지난 20년간의 생활물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11월 배추 소매 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배추 공급이 감소한 탓이다. 예측된 배추 가격은 11월 기준 최고가이며 작년 같은 달보다 22.5% 비싸다. 11월 포기당 배춧값은 △2020년 2981원 △2021년 3480원 △2022년 3848원 △2023년 4327원 등으로 매년 올랐으며 다음달 처음으로 5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비용 부담으로 김장 양을 줄이거나 김장 자체를 포기하는 ‘김포족’이 등장

하고 있다.

매년 김장을 한다는 유점심(74)씨는 “김장철이 코 앞으로 다가오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배추 가격이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 최대한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라며 “가격이 하락해도 김장 비용이 예년보다 많이 들어간다면 김장하는 양을 줄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인들 역시 김장 비용 부담을 낮추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동시장 상인 고모(54)씨는 “배추 가격이 떨어진 건 체감되지만 여전히 좋은 배추는 1포기에 1만2000원, 비교적 상태가 나쁜 작은 배추는 6~7000원에 판매 중이어서 아직까지도 ‘너무 비싸다’며 구매를 포기하는 손님들이 있다. 김장 비용이 부담된다면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올해는 날씨 등 변수가 많아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한다. 배추 가격이 확 내려가면 배추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김장, 늦게 할수록 저렴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농림부는 9월 초 태풍으로 초기 생육이 부진했으나 10월 기상 호조로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배추·무 공급이 늘어나 연말로 갈수록 김장 비용이 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4인 가구 김장비용(20포기 기준)은 10월 상순 45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35만6000원)보다 10만원 비쌌다. 하지만 10월 하순에는 33만2000원으로 전년(32만4000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11월에는 상순 29만8000원, 하순 30만6000원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12월 역시 상순 29만5000원, 하순 29만8000원으로 20만원 대 후반으로 전망됐다.

한편 농림부는 현재 기상호조로 배추 생육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달 하순부터 준고랭지 배추와 김장 배추 조기 출하가 이뤄지면 배춧값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다운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어그 팝업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양털 신발로 유명한 ‘어그(UGG) 팝업 매장’을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매장에서는 천연 양털로 생산돼 보온성이 뛰어나 더욱 따뜻하고 활동성도 좋은 다양한 양털 신발들을 선보인다. 디자인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부츠를 비롯해 로퍼, 블로퍼 등 다양한 아이템을 팝업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기아, 픽업 트럭 ‘더 기아 타스만’ 티저 공개

기아가 16일 ‘더 기아 타스만(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

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타스만의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암시했다.

이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픽업 타스만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은 티저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 트럭 타스만은 진보한 디자인과 공간활용성, 범용성, 안전성 등 기존 픽업의 표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통해 고객에게 깊이 있는 경험을 더하며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Dive into a New Dimension)’ 시키고자 한다.

기아는 타스만의 완성도 높은 상품성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를 포함한 미국, 스웨



덴, 호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4년이 넘는 개발 기간 동안 △오프로드 특화 성능 △내구성 △R&H(Ride & Handling) △트레일링 안정성 △도하 등 1777종의 시험을 1만8000회 이상 진행했다.

기아는 한국시각 오는 29일 오후 4시 사우디 제다모터쇼에서 타스만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며 기아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iaWorldwideOfficial>)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지역 자립준비청년 의료용품 지원

160명에 구급용품 등 키트 전달

광주은행은 최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최모세 광주아동복지협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의료용품 키트 160상자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법적 보호시설에서 독립해 홀로 생활하는 청년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준비했으며, 구급용품 및 영양제로 구성된 의료용품 키트를 광주자립지원상담기관을 통해 신청받은 자립준비청년 160명에게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광주은행은 지난해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주거 월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들과의 문화체험 활동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광주은행은 최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최모세 광주아동복지협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의료용품 키트 160상자를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정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재테크 방법’, ‘저축의 중요성’, ‘금융사기 예방법’, ‘청년 특화 금융상품과 선택기준’ 등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금융 마인드를 함양하는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상의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 건의

대통령실 등에 특별법 개정 촉구 “서남권 거점공항 부재... 손실 확대”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 각 정당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과 주변지역의 개발 부족 등에 대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국가적 재정 손실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종전부지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의 복합개발과 기반시설에는 국가지원 등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전지역에는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충분한 소음 완충 지역 확보와 더불어 태양광발전단지, 공항도시 조성 등 주변지역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거점공항 부재로 2023년 국제선 여객이용의 경우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무안공항은 7위에(이용률 0.3%) 머물러 있으며 2022년 무안공항 적자액 역시 202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국가재정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비의 부족분과 사회간

접자본·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신설돼 추진 중에 있으나 이전 지역민의 반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10여 년간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의 이전을 통해 무안공항이 남부경제권의 글로벌 관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무안통합공항으로 육성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공항의 집중해소, 광주·전남 지역의 공동발전과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